

# 도내 두번째 IB 월드스쿨 공식 인증

익산 영만초, PYP 월드스쿨 인증으로 탐구 중심 수업·평가 실천 기반 강화

도내에서 두 번째 IB 월드스쿨이 탄생했다. 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익산의 영만초등학교(교장 노태호)가 국제바칼로레아 본부(IBO)로부터 PYP(초등학교 과정) IB 월드스쿨로 최종 인증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3월 IB 관심학교·10월 IB 후보학교로 지정된 이후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다.

영만초는 그동안 개념 기반 탐구 수업 및 평가 운영, '질문하는 학교' 선도학교 운영 등 IB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들을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구현해 왔다. 특히 학교 구성원 간 협력 문화가 정착하며, IB 프로그램이 자연스럽게 뿌리내릴 수 있었다. 이번 IB 월드스쿨 인증으로 영만초는 IBO의 정기 컨설팅과 국제표준자료를

기반으로 한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정기적 자체 평가 및 외부 점검 등을 통해 수업·평가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전북교육청은 영만초의 IB 월드스쿨 인증을 계기로 IB 교육이 단일 학교의 성과를 넘어 도내 전반의 수업혁신 문화를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오선화 미래교육과장은 "영만초의 IB

월드스쿨 인증은 전북의 교실에서 탐구 중심 배움과 평가가 더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전북의 모든 학교가 수업혁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노태호 교장은 "아이들이 질문을 중심으로 탐구하고, 삶과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넓혀가는 과정이 우리 학교가 지향하는 가치"라며 "이번 인증을 계기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성장하는 배움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일 전주 베스트웨스턴플러스 호텔에서 도내 직업계고 진로 미결정 학생 및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2025 직업계고 일하고·일잡고 캠프'를 운영했다.

## 도내 직업계고 진로 미결정 학생 대상 취업동기 강화

전북교육청, 2025 직업계고 일하고·일잡고 캠프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일 전주 베스트웨스턴플러스 호텔에서 도내 직업계고 진로 미결정 학생 및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2025 직업계고 일하고·일잡고 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 캠프는 취업목표 설정과 진로 설계 기회 제공, 전문가 취업특강 및 직무체험 활동을 통한 취업마인드 향상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진로 결정이 어려운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적성과 역량을 탐색하고, 미래 직업을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프로그램은 △직업계고 선배와 함께하는 성공 시나리오 토코쇼 △실전 면접 30초 헬린지 △직무 이해를 돕는 직장 OX 생존 퀴즈 △3초 자기 PR 미션 △'신입사원 1일차·3개월차' 직장체험 레크레이션 등이다.

이에 학생들은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 준비 전략과 직장 생활의 실제 모습을 체험하며 진로 방향을 구체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형심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이번 캠프가 자신의 적성과 감성을 발견하고, 미래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진로 미결정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진로·취업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에듀페이로 ESG 기부 동참하세요”

전북교육청, 내년 2월 28일까지 참여기간 운영... 1000원 미만 바우처 기부 가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전북에듀페이 기부 참여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학습 및 진로 활동에 사용하고 남은 1,000원 미만의 소액 바우처를 전북에듀페이 앱을 통해 기부하는 행사로, 참여 기간은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 학생들이 기부한 금액은 전북특별자

치도교육청 사람의 장학화에 전달될 예정이다. 올해 전북에듀페이는 학생과 학교밖 청소년 17만3,000여 명에게 340억 원 지급됐다. 전북에듀페이(학습 및 진로 지원비) 바우처 사용처 분석 결과 서점에서의 사용률이 27.9%로 가장 높았고, 문구점(17.9%), 안경점(16.2%),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11.3%)가 뒤를 이었다. 장경단 학교안전과장은 "전북에듀페이를 통해 작은 기부가 큰 나눔으로 확산되는 문화가 자리잡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북에듀페이 지원 사업이 기부 문화 활성화와 상생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유학생 한국 전통놀이 이해 증진

전주대, '2025 외국인 유학생 웃놀이 대회' 성료

전주대학교(총장 류두현)는 지난달 29일 스타센터 하림미션홀에서 (사)전북특별자치도 한국민속웃놀이협회(회장 이정애)와 함께 '2025 외국인 유학생 웃놀이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의 전통놀이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자 기획된 행사다. 특히 전주대는 국내 대학 가운데 최초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웃놀이 전수 교육과 공식 대회를 운영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전주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7개국 63명(3명 1팀), 총 21개 팀이 참가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승부를 벌였다. 대회 결과, 1위는 베트남 유학생으로 구성된 355팀(레홍



반·드영다아퐁·짬후호영)이, 2위는 중국 '트리옴' (양운비·변천연·서재침)이, 3위는 중국 '인트러스팀' (이가령·하자연·좌가림)이 차지했다. 1위를 한 355팀의 팀원이자 석사과정 유학생인 짬후호영(금융보험학과) 씨는 "한국 전통문화유산인 웃놀이를 직접 체험하고 전문가들에게 경기 방법과 전략을 배울 수 있어 뜻깊었다"며 "실제 경기는 유튜브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박진감 있고 긴장감이 넘쳤으며,

팀원들과 함께 만든 추억은 잊지 못할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사)한국민속웃놀이협회 이정애 회장은 "이번 대회가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의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공동체 정신을 느끼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다양한 국가의 유학생들이 웃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니 매우 뿌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송고한 웃놀이 문화를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에게도 널리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제교류원 관계자는 "전주대학교는 유학생들이 한국의 전통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우러지는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특히 웃놀이 대회는 협동심과 배려를 익히는 교육적 장이자, 유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소통의 무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 전주대 e-복지관, 청년 공익 활동 공로 전북도회의의장상

전주대학교(총장 류두현) e-복지관 아동청소년복지팀이 청년 공익활동 공로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의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1일 전주대에 따르면 세이브더칠드런새움센터와 협력해 아동·청소년의 놀 권리 증진, 마음건강 회복 등을 주제로 다양한 연계활동을 진행해 왔다. 올해는 청소년의 건강관리능력 향상과 여가 활동 지원을 목표로 한 프로그램 등 다면적인 접근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과 청년 참여 확대에 앞장서며 나눔과 협동의 봉사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했다. e-복지관 오단이 관장은 "청년 주도로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을 위한 복지활동을 펼친 것이 수상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익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학술제

전주대학교(총장 류두현) 사회복지학과(학과장 오단이)는 최근 '온(溫)마음결'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36회 학술제 씨알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학술제 첫날은 개회식을 시작으로 재학생들의 다양한 학술 발표가 진행됐다. 4학년 학생들은 사회복지사로서의 소명을 다짐하는 선서식을 가졌다. 이어 둘째 날에는 학술제 프로그램 시상식이 이어졌고, 학생회는 1년간의 활동 보고와 예산 결산을 위한 정기총회를 진행했다. 특히 2000학번 김창명 졸업생의 '제1기 창명장학금' 전달식을 통해 2명의 후배들에게 각 1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외에도 2001학번 졸업생이 직접 학교에 방문해 재학생들에게 생생한 현장경험과 노하우를 전달했다. 또 'Re:union Day'를 통해 재학생들의 고민에 선배들이 답하는 '무엇이든 말해보실' 코너를 진행, 선배 간 깊은 교류와 소통의 장을 가졌다. /장은성 기자

##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센터

### 건강식생활체험 프로그램 성료

전주시 완산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난 4월부터 11월 말까지 운영한 어린이 건강식생활체험관 '건강놀이나라 및 놀이나라'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건강을 위한 7가지 약속을 찾아보아요'를 주제로 유아 성장 발달에 맞춘 놀이형 체험 교육으로 구성, 기관과 가정이 참여 가능한 연계 활동도 함께 제공했다. /장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 대사성 질환 새 치료 표적 규명

전북대 배은주 약대학장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  
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받아  
신설 약대 교육·연구기반  
구축... 보건의료양성 토대



면 대사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분자 기전과 함께 규명했다. 이는 대사성 질환 치료제 개발에 중요한 기반

을 제공할 연구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대한약학회 학술위원장으로서 학술프로그램 혁신을 주도해 국내 약학 연구 생태계 강화에도 기여하고, 약학대학 학장으로서 교육·연구 기반 구축에도 중심 역할을 하며 지역 보건의료 인재 양성의 토대를 마련했다. 배은주 교수는 "이번 수상은 저 개인의 성과라기보다 함께 연구해 온 동료 연구자들과 학생들 덕분에 가능했다"며 "대사성 질환은 여전히 많은 환자들이 고통받는 분야인 만큼, 나의 연구들이 새로운 치료 전략 개발로 이어지는 작은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와 임상을 연결하는 의미 있는 연구를 지속해 우리 사회의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은성 기자

## 교육급여 온라인 신청 어렵다면?

전북교육청, 내년 2월 27일까지 본청 등서 방문접수 창구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급여 수급자 중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바우처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방문신청 접수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2023학년도부터 온라인 바우처 방식으로 전환됐으며,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사이트(e-voucher.kosaf.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접근성이 낮은 수급자 등의 신청 노력 방지를 위해 12월 2일부터 내년 2월 27일까지 방문신청 창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교육급여 수급자 중 바우처 미신청자다. 신청은 학생 본인(만 14세 이상) 또는 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 세대주·성인 세대원)가 할 수 있다. 보호시설 거주 학생은 시설장이 신청하면 된다. 고교 및 특수학교, 학력인정평생교육 시설 학생은 전북교육청에서, 초·중학교 학생은 각 학교 소재 관할 교육

지원청에서 접수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신분증과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보호자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하며,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연 1회 지급되며, 2025학년도 단기는 초등학교 48만17,000원, 중학생 67만9,000원, 고등학생 76만 8,000원이다. 심사 완료 후 지급 승인 문자가 발송되며, 바우처는 신용·체크카드 또는 간편결제(페이코) 방식으로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경단 학교안전과장은 "교육급여 대상 학생이 지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현장 접수 기간을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1일 우석대학교 본관 22층 대회의실에서 박노준 우석대 총장과 리구한 전주고등학교 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의인재 양성 협약식이 열렸다.

## 우석대-전주고, 창의인재 양성 '맞손'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와 전주고등학교(교장 리구한)가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1일 우석대에 따르면 이날 대학 본관 2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박노준 총장과 조현철 입학처장, 은석민(한의예과) 교수를 비롯해 리구한 교장, 조장익 자공고부장, 한미희 교육과정부장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우석대학교의 시설 및 전문 인력,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학생 탐구·진로 지원 △한의학·생명·바이오 분야 전문가 특강 및 학술 활동 운영 △온오프라인

멘토-멘티 프로그램 진행 △연구실 체험 및 실습·봉사 등 교육 교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노준 총장은 "지역 고교와의 협력은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우리 대학교가 보유한 교육 자원과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리구한 교장은 "우리 학생들이 실제 대학의 교육 환경을 체험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며 "우석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역량이 더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답했다. /장은성 기자